연중 제21주일

# 서울주보

2009년 8월23일(나해)
- 제1698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두초(Duccio di Buoninsegna, 1260년 경-1319년 경),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1308년-1311년, 템페라, 시에나 대성당 박물관, 시에나, 이탈리아

**성화 해설** 이 작품은 시에나 대성당의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제단화 중 한 부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옷만 황금색 선으로 장식된 것은 그분께서 영원한 빛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요히 경청하고 있다.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제1독서** 여호 24,1-2ㄱ.15-17.18ㄴㄷ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환호송** 요한 6,63ㄷ.68ㄷ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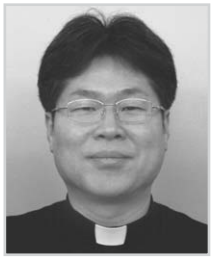
**복음** 요한 6,60-69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생명의 말씀

#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후회하고 계시죠? / 네. / 그런데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네?"

여름휴가를 앞두고 작은 실수로 명동 성당 근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구용 칼을 잘못 사용하여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치료 도구가 없어 만약을 위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과 119구조대, 경찰 등이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간단한 소독 후에 전문의가 와서 상처를 보고 꿰매면서 저에게 한 말이 "후회하고 계시죠?" 였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면서 '좀 더 조심할걸, 오늘 말고 다음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으면서 덧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또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당으로 오면서 지금 후회하는데 또 후회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다 나을 때까지는 모든 것에 조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곁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에 베드로는 모범 답안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뽑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나약한 나를 먼저 알고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 나의 부족함이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실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질문에 옳은 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옳은 답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화답송 후렴). 그러나 올바른 선택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도와주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여정을 본받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말씀의 이삭

# 어릴적 꿈

최정원 다리아 | 뮤지컬 배우

어릴 적부터 유난히 빵을 좋아했습니다. 소꿉놀이를 할 때에도 '모래알로 떡 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짓는' 그 모래알 밥과 나뭇잎 으깬 반찬 대신 빵과 차를 준비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시절 제 꿈 역시 빵집 주인에게 시집을 가서 매일 맛있는 달콤한 빵들을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빠 역을 맡은 옆집 살던 남자친구를 얼른 회사로 출근시켜 버리고 뒷집 단짝과 세상사(?)를 논하는 것은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저희 또래 세대들에겐 질리지 않는 레퍼토리였습니다. 가족에게 만들어 주는 끼니건 친구가 놀러 와서 내어주는 간식이건 모두 다 흙으로 만든 케이크 한 덩이와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수돗물 한 잔은 저의 자랑스러운 단골 메뉴였습니다. 여자라면 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그때부터 저의 빵에 대한 애착은 참으로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등학교 동창 연말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선물 교환이었는데, 분장도 채 못 지우고 시간에 쫓겨 갔던 저는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그날 공연 끝나고 팬으로부터 받은 조그만 케이크 상자를 오늘의 선물이라며 임기응변으로 내 놓았습니다.

"너 아직도 밥보다 빵 좋아하냐? 니 빵이라면 이제 신물난다." 이제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는 옆집 살던 어릴 적 소꿉놀이 신랑이 비꼬듯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내 밥상 한번 받아 볼래? 그래도 그때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잖니~." 오래전 소꿉장난을 떠올리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달콤하고 화려한 케이크가 아닌 초라해 보이는 평범한 소보로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조금 초라한 것 같아 겸연쩍게 웃으며 "그래도 흙으로 만든 것보다는 낫잖니 ^^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데 한 조각씩이라도 나누어 먹자~" 하며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듯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던가… 이제는 화려한 조명대 위에 놓여진 달콤한 케이크보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은은한 맛을 주는 그저 본연의 빵 맛을 느낄 수 있는 빵이 좋습니다.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빵 굽는 기술을 배웠을 것 같은 어릴 적 생각이 종종 나곤 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4

## 과도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양심상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안락사에 관한 선언 2장〉.*

*"[의료집착은] 인공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연장시켜 환자들을 더 고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이것은 임종자의 존엄성과 죽음을 받아들여 궁극에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맞이하는 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 생명의 엄연한 일부이다" 〈의료인헌장 119항〉.*

통상적이고 균형에 맞는 치료방법을 모두 사용한 후 막다른 길에 와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사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만을 줄 수 있는 예외적이고 과도한 치료를 양심에 따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종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나 안락사와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생명의 복음 65항). 그러나 여기서도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간호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집착적인 행위를 중단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사들의 양심과 전문적인 지식 및 정확한 판단입니다.

빛과 소금

# 참된 행복을 위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자

**중독자가 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나는 10여 년 전 알코올중독에 빠져 사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아침까지 술이 덜 깨어서 미사도 봉헌하지 못하고, 봉성체도 나갈 수 없었다. 중독 상태에 있던 나는 사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장애인과 다름없었다. 건강이 최악의 상태였기에 병원에서 중독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을까 반문해 본다. 결국 중독자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중독에 빠지면 두 얼굴로 살아간다.**

평상시 온순한 사람도 술만 마시면 원숭이처럼 날뛰고, 돼지처럼 졸고, 양처럼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사자처럼 남들과 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평소의 나와 술을 마신 나는 완전히 다른 인격의 이중인간으로 살아간다. 술이든 도박이든 약물이든 중독 상태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중독의 노예가 되어 황폐한 삶을 산다.

**중독은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중독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 가장이 중독자가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여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린다. 술이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폐유처럼 악영향을 준다.

**알코올중독은 결코 치유되는 병이 아니라 회복되는 병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음주에 대해 걱정을 한다면, 알코올중독검사 문항을 조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 술을 줄이거나 끊어 보려고 하였는가?
2.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말하면 화를 내는가?
3.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적이 있는가?
4. 아침에 일어나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

위의 질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이제부터라도 술에 조심을 하고,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중독자이므로 전문가를 만나 확실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중독은 혼자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질병이다. 혼자 단주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대부분 실패를 거듭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0%가 1년 정도 술을 끊고, 치료 후에도 단주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70% 정도가 단주를 한다.

**중독은 가족 모두 함께 앓는 가족 질병이다.**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들 역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은 심각한 정도의 폐인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중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독자를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먼저 중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중독자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가족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족들은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중독자의 핑계나 합리화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알코올중독에서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자.**

한 번 알코올중독자가 되면 치료를 받더라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정상 음주자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언젠가 12년 동안 단주를 하던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입에 대자 3달 만에 전보다도 심각한 알코올중독 상태로 되돌아갔다.

중독자는 자신이 알코올중독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중독사실을 계속 은폐할수록 중독은 더욱 진행되어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나 역시 알코올중독에서 회복하는데 김옥균 주교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독자의 회복에 전념하면서 "치유의 주인은 하느님이다"라는 사실을 자주 체험했다.

**중독자를 위해서는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중독은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질병으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중독은 의료적인 치료만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심리적이고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다.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에서는 각종 중독자를 상담하고, 중독에 관한 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독을 알리기 위해 중독에 관한 책을 발간하고, 중독에 관한 예방과 홍보를 위해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독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독전문치료사 배출을 위해 중독학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위원장 **허근** 신부

**상담 및 문의:** 364-1811-2(www.sulsul.or.kr)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 소식

### '사제의 해' 마침 날짜 변경 안내

주한 교황청 대사관은 8월4일자 공문을 통해 '사제의 해는 2009년 6월19일부터 2010년 6월11일까지임을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확인하였다' 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사제의 해 관련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annussacerdotalis.org).

###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신규 개편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운회 주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hwahai.cbck.or.kr)를 새롭게 개편하고 주 1회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북녘의 소식과 새터민 관련 소식을 제공하고, 각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수도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을 전합니다. / 문의: 499-2781

###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8월25일 이복영 요셉 신부(53세) 1958년, 용산
· 8월29일 유수철 도미니코 신부(59세) 1977년, 용산

###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비봉추모관(수원) 관리책임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남교우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833-9439 도림동성당

###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이안나 서양화전

평화화랑은 '이안나(안나, 토론토교구 한맘성당) 서양화전'을 8월26일(수)~9월1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 교구청 알림

###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8월28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명동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 사목국 가정사목부 9기 부부태교교실

· 대상: 임신 4개월 이상 부부 8쌍(선착순)
· 때: 9월12일~26일 매주(토) 14시~17시(3주간)
·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9월4일까지 접수)
· 회비: 10만원 / 727-2072(www.ihome.or.kr)

### 함께하는 여정 1단계

· 대상: 함께하는 여정 교육을 받지 않은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8월27일까지 본당 신청서로 접수)
· 때, 곳: 9월3일~24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2만5천원
· 문의: 727-2065, 6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 향심기도(소개강의 및 소개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www.hyangsim.com
· 대상: 누구나 / 010-8674-1105 사목국 향심기도회

| | |
|---|---|
| 소개강의 | 때, 곳: 9월9일부터 매주(수) 14시~16시(4주),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회비: 1만원 |
| 2박3일 소개피정 | 때, 곳: 9월11일(금) 17시~13일(일) 16시, 상지피정의 집 / 회비: 8만원 |

### 노인사목부 동아리강사 양성과정 모집(문의: 765-8458)

| | | | |
|---|---|---|---|
| 시니어NIE지도사(전문가과정) | (금) | 13시30분~17시30분 | 30만원 |
| 노인웃음치료사(초급) | (월) | 10시~12시 | 19만원 (재료비 별도) |
| 노인풍선아트지도사(초급) | (월) | | |
| 노인우크렐레지도사 | (수) | | |
| 노인민요지도사(초급) | (화) | 14시~16시 | |
| 노인풍선공예지도사 | (월) | | |
| 노인합주지도사 | (수) | | |
| 전례무용지도사(초급) | (목) | 15시~17시 | |
| 노인종이접기지도사 | (수) | | |

### 직장인을 위한 문화 · 영성 아카데미

· 때: 9월10일~10월29일 매주(목) 19시30분
· 곳: 명동대성당 내 꼬스트홀 / 주제: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십니다(예레 20,11)
· 회비: 5만원(총 7회) / 9월10일(목)까지 접수
· 문의: 727-2078, 773-1132 사목국 직장사목부

### 경찰사목위원회 교리교육·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 | |
|---|---|
| 교리교육 봉사자 |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 55세 이하 교우) |
| 유치장사목 봉사자 |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받은 60세 이하 교우) |

### 사목국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강좌 개강

· 대상: 일반교우 / 회비: 5만원(교재포함)
· 때, 곳: 8월31일부터 매주(월) 15주간, 명동성당 내 교육관(당일접수) / 문의: 775-5789
· 오전반: 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 19시~21시

| | | |
|---|---|---|
| 정기강좌 | 오전·오후반 | 입문, 1~5권 |
| 구약특강 | 오후반 | 예레미아서(인완식 신부) |

### 서울가톨릭 청소년회 직원모집

· 내용: 서울가톨릭 청소년회 청소년 문화공간 '주' - 역촌동 업무지원 파트 직원
· 대상: 청소년지도, 상담,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생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9월4일(금)까지 방문·이메일·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4층 / 이메일: c-youth@catholic.or.kr
· 문의: 727-2089(www.c-youth.or.kr)
· 개별통보 후 면접실시 / 제출서류 반환 안 됨

### 본당 수도자 연수

· 대상: 각 본당 수도자(9월1일까지 접수) / 회비 없음
· 때, 곳: 9월8일(화)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모집

· 내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 수탁기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10월 개관 예정)' 에서 함께할 직원모집 / 분야: 사회복지사(지역개발),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물리치료사, 홍보
· 문의: 727-2256, 010-4574-442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개관준비팀(8월28일까지 접수)

### 알코올 중독자 단기통합치료 프로그램

· 대상: 알코올 중독자 20명 / 치료진: 허근·이상윤 신부, 유태혁(의학박사), 최문종(전문의), 이태선(미국중독치료전문가), 김지연(가족치료사)
· 때, 곳: 9월14일(월)~16일(수), 복자사랑 피정의 집 / 364-1811, 2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 회비: 10만원(국민은행 512602-01-145588 허근)

##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녀회 성소모임

· 때: 8월28일(금) 17시~30일(일) 13시
· 곳: 용인수련원 / 문의: 011-380-5159

함께해요! 감사와 사랑 운동 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손이 필요할때 '도와줍니다.'

# 알림

## 모임

**향심기도(침묵) 소개피정(개인 침묵피정 가능)**
· 때: 9월5일(토)-6일(일) / 041)733-2992~4
· 곳: 씨튼영성의 집(주최) / www.setoncent.or.kr

**사랑의씨튼수녀회젊은이길찾기피정**(문의: 011-9193-3005)
· 대상: 성소의 길을 찾는 남녀 젊은이 / 9월7일까지 접수
· 때, 곳: 9월12일(토)-13일(일), 씨튼 영성의 집(논산)

**천호성지 9월(1박2일) 피정**(문의: 063-263-1004, 5)
· 주제: 행복하여라(강사: 리순성 신부) / cheonhos.org
· 때, 곳: 9월19일(토)-20일(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여성연합회 월례회**
· 주제: 말하기 강의 / 특강: 유정아 교수
· 미사: 임덕일(꾸르실료 지도신부) / 778-7543
· 때, 곳: 8월25일(화),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 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유명강사가 하며 매주 바뀜)

**프란치스칸 기초 관상기도**
· 때: 매주(일) 19시-20시30분(강사: 이재성 수사)
· 곳: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지하성당 / 010-9253-6385
· www.cafe.naver.com/BONAVENTURA(연중무휴)

**순교자 성월 일일 대피정**(문의: 011-268-4549)
· 강사: 박효철 신부/주최: 묵동파티마세계사도직(푸른군대)
· 때, 곳: 9월1일(화) 9시30분-16시(파견미사), 묵동성당(전철 7호선 먹골역 6번 출구) / 회비: 5천원(중식제공)

**가정선교회 33차 성가정 영성 1일피정**
· 대상: 가정치유와 성화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회비없음, 김밥제공, 미사준비) / 강사: 황창현 신부, 이현주 회장
· 때, 곳: 9월2일(수) 10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77-1773, 010-5674-8511, 011-9135-7815

**마리아니스트영성을통한 '하느님현존체험' 1일 침묵피정**
· 주제: 하느님 현존과 의식성찰(회비: 1만5천원)
· 대상: 성인(선착순 20명) / 미사준비·필기도구 준비
· 때, 곳: 9월6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

**작은예수회 성령봉사회 8월 여름 대가족 산피정**
· 매봉산과 연인 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가평군 하면 마일 1리 102-2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피정
· 강사: 유명 강사진, 박성구 신부, 신상옥 형제(말씀과 찬양) / 010-6255-0155, 010-7764-3885
· 때: 8월28일(금)-30일(일) 2박3일(숙식제공)

**한국교회사연구소 하반기 공개대학**
· 주제: 한국의 성지, 어떻게 이해할까
· 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 756-1691(내선 1번)
· 때, 곳: 9월17일-12월3일 매주(목) 19시-20시30분(90분), 평화방송 빌딩 4층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 / 홈페이지: www.history.re.kr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은혜로운 철야기도회**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 때: 매주(금) 22시-4시30분 / 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 8월28일(금): 신림동 성령쇄신 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528·5535·6512)에서 진행
· 9월6일(일): 동성고등학교 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진행 / 문의: 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 | | | |
|---|---|---|---|
| 8월26일(수) | 감사와 찬양의 삶(찬양부) | 9월2일(수) | 기도의 삶 / 송정연 |
| 9월9일(수) | 순교성월특강 / 이성구 신부 | 9월16일(수) | 순교성월특강 / 양정우 신부 |

## 교육

**평화심리상담소 건강한 분노표현**
· 내용: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함 / 775-4831, 2
· 때: 9월4일(금)·9월5일(토) 오전 10시(8주)

**성모다산다회 차 예절교육**
· 때, 곳: 8월25일(화)부터,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주최)-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숙대 정문방향 / 문의: 707-5658, 707-5500

**천주교 아버지학교 논현 1기 아버지 학교 지원자 모집**
· 때: 8월30일-9월27일 매주(일) 14시-20시(회비: 10만원) / http://cafe.daum.net/fatherujb
· 곳: 논현동성당(주최) / 548-2443, 011-328-7871

**영상포럼 지도자교육 제11기 모집**
· 대상: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평신도 지도자
· 때: 9월7일부터 매주(월) 14시-17시(6주과정)
· 곳: 성 바오로 딸 수도회(주최)-전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회비: 10만원) / 944-0800, 016-738-1999

**나자렛 성가회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여성부 자격인정)**
· 대상: 전문대졸 이상 / 회비: 30만원(교재비 포함)
· 때: 9월12일-12월5일 매주(수) 18시30분-22시30분, 매주(토) 9시-13시 / 379-4803(계좌: 신한 100-025-336450)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주최)-종로구 평창동

**서울 까리따스 알코올 상담센터 프로그램**
·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의존자 및 가족을 도움(http://cacc.or.kr)
· 무료 상담 및 문의: 521-2364, 2577(내방 10시-17시)

| | |
|---|---|
| 의존자 프로그램 | 술을 끊고 싶은 분을 위한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 |
| 가족 프로그램 | 가족대상 교육 및 상담실시 |
| | **자녀 모임 운영**: 매주(화) 오후 7시30분 |

**메종 프로그레스(발달 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 |
|---|---|
| 전문적 상담, 심리치료 종합심리검사 |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줍어서 왕따를 당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우울, 불안하고 긴장하여 자신의 일을 잘해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 학생 및 성인, 부부갈등 및 부모의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부모-자녀 갈등이 심한 가족 |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문의: 587-9207)

| |
|---|
| 사목상담자 양성 교육: 가을학기-이상심리, 상담심리, 가족치료, 심리검사 (가톨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교육수련 인정) 9월7일-12월14일 매주(월) 10시-17시 / http://jinaein.com |
| 전문심리치료·음악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 가족간 갈등 |
| 청소년·성인 심리검사: 성격, 정서, 인지, 지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

**가톨릭교리신학원 2학기 영성·교양 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 문의: 747-8501~5(http://ci.catholic.ac.kr) 교무과

| 영성교육강좌(12강좌) | 교양교육강좌(13강좌) |
|---|---|
| 신학과 영성의 만남(논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와 종교심성 |
| 9월1일-11일24일 매주(화) 14시-15시40분 / 회비: 2만원 | 9월2일-11월25일 매주(수) 14시-15시40분 / 회비: 15만원 |
| 강사: 전영준·박준양 신부 | 강사: 최기섭 신부 외 3명 |

**바오로 성서모임 2학기 과정**
· 대상: 성경 기초과정 이수자(당일접수) / 회비: 6만원
· 때, 곳: 9월1일(화)-12월4일(금), 성 바오로 교육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명동성당 구내)

| 개강일 | 오전반 | 과목 | 오후반 | 과목 |
|---|---|---|---|---|
| 9월7일(월) | 10시-12시 | 바오로 서간 | 2시-4시 | 창세기 |
| 9월1일(화) | 10시-12시 | 사도행전 | 7시-9시 | 역사서 |
| 9월3일(목) | 10시-12시 | 루카복음 | 2시-4시 | 예언서 |
| 9월4일(금) | 10시-12시 | 역사서 | 문의: 752-7894 | |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특별 영성강연회 / 무료특강**

| | |
|---|---|
| 특별 영성 강연회 | 주제: 인간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추구 |
| | 회비: 2만원(회원), 4만원(비회원) / 강사: 유시찬 신부 |
| | 8월28일(금)-29일(토) 10시-16시, 서강대 이냐시오관 소강당(미사포함, 중식제공) / 문의: 717-3869 |
| 무료특강 | 주제: 삶이 신앙을 부른다 / 강사: 신달자 시인(특강 후 미사) |
| | 9월7일(월) 13시-15시, 예수회 센터 성당(서강대 내) |

**전·진·상 영성사목센터**(문의: 726-0710)

| | |
|---|---|
| 성경치유피정 "화(火)를 다스리는 치유피정" 4차 | 9월24일(목) 9시30분-16시30분 |
| | 미리등록 요망, 선착순 12명 |
| T·A를 통한 자기발견과 관계 개선(T·A이론) | 9월1일-11월3일 매주(화) 10시-13시(10주) |
| 불어 성경 | 9월19일-12월26일 매주(토) 10시-12시(15주) / 독해가능자 |
| | 사도행전 묵상, 나눔 / 강사: 노정혜 폴렛 선생(AFI) |

**잠원동성당 '여정 성경' 공부**
· 주제: 모세오경(강사: 황성옥 수녀) / 010-9970-0282
· 때, 곳: 9월7일-12월14일 매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잠원성당 영상실(회비: 5만원)

**첫영성체 지도자를 위한 실천교리교육연수10기**
· 대상: 첫영성체, 예비자, 견진교리 담당자(9월1일-30일까지 접수) / 763-2274, 017-714-2274 노틀담 실천교리교육 연구소(홈페이지: www.ndrpp.or.kr)
· 때: 10월12일·26일, 11월16일·30일, 12월7일 (월) 14시-17시30분(총5회), 노틀담 교육관(종로 가회동)

**탈리다쿰센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안내**
·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 문의: 742-9471, 3(문의 후 접수) / www.taly.co.kr

| | | |
|---|---|---|
| 탈리타쿰 영성강좌 | 매주(수) 11시 |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 희망 여행 |
| 생활심리 문화강좌 | 매주(수) 10시 |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
| 봉사자 실무강좌 | 매주(수) 12시 | 자원봉사 교육개론 |

## 모집

**가톨릭 다도회 가을 학기 남녀 수강생 모집**
· 내용: 차생활과 예절교육(기초과정)
· 개강: 9월7일(월) 주 1회 / 3673-5668, 010-5080-9459

**재속 전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
· 대상: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관상과 사도직)에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1960년 이후 출생한 남녀 교우, 영세 후 5년이상 견진 받은 분(9월8일까지 접수) / 363-6317, 010-2020-1931 심기종

## 미사

**삼성동성당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百花爛漫) 월례미사**
· 대상: 회원 및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동참할 교우
· 때, 곳: 8월26일(수) 10시, 삼성동성당 / 512-01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절두산 연령회**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8월28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승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8월27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서울경기 성모신심미사와 다락방 기도**
· 미사: 배형진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8월31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꽃봉헌 및 스카풀라 봉헌식 있음)

## 안내

**(국내 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764-4741~3(www.성가정입양원)
· 주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전·진·상 호스피스 / 완화의료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 지정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 문의: 802-9313 전진상의원(시흥)
· 홈페이지: www.jeonjinsang.or.kr

**가정문제상담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이혼위기, 노인, 가족치료 / 온라인 상담(www.bhc.or.kr)
· 매주(월~금) 10시-18시 / 문의: 3288-1516

**선교세상과 찬양 사도단 공연**(문의: 874-6346, 011-661-5500)
· 때, 곳: 8월29일(토) 10시-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주최: 선교세상) / 강사: 차동엽·현정수 신부, 신상옥·고영민·이형진·유승훈 외 찬양사도단 가수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 문화마당

### 미사 경본 총지침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편저 | 164쪽 | 7천 원 | 구입문의: 460-7582

미사 경본 제3표준판에 수록된 총지침 부분을 단행본으로 펴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개정한 미사 경본 제3표준판은 2002년에 수정·발행되었으며,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이를 번역하여 주교회의 2008년 추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 땅 위에는 하늘을 담은 곳이 있다

김형찬 지음 | 주심 | 421쪽 | 1만5천 원 | 구입문의: 322-8381

한남동성당 주임신부인 저자가 본당 신자들과 함께한 이탈리아 성지순례기다. 베네딕도, 프란치스코, 비오신부님 등 주요 성인들의 발자취가 남은 곳을 찾아 성인들의 삶과 영성을 깊은 묵상으로 길어 올려 평면적인 순례기와는 다른 감동을 준다.

### 한 젊은 사제의 인생 레슨

짐 윌리그·태미 번디 지음 | 성바오로수도회 옮김 | 성바오로 | 224쪽 | 8천5백 원

암 선고를 받은 한 젊은 사제가 암 투병이라는 '고통의 학교' 에서 이를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고통이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총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순례자 아브라함 2

송봉모 지음 | 바오로딸 | 392쪽 | 1만1천 원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깊이 있고 감동적으로 다룬 성경 주석서이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어두운 모습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며, 우리도 그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준다.

### 그리스도론, 하느님 아드님의 드라마!

박준양 지음 | 생활성서 | 592쪽 | 1만2천 원

'박준양 신부와 함께하는 신학여행' 7번째 권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리스도론적 개념과 주제들을 제시했다. 저자의 체험들을 곁들여 '역사의 예수님' 에 관해 전하면서,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 바오로 사도가 강론하는 마르코 복음

정훈 엮음 | 기쁜소식 | 216쪽 | 7천 원 | 구입문의: 762-1194

미사 전례에서는 바오로 서간과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이런 묵상을 낯설어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 책은 성경묵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바오로 사도가 마르코 복음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성경을 엮었다.

### 함께하는 사랑 · 평화 · 희망 콘서트

· 입장권: 1만 원 | 예매 및 문의: 2258-8341~3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 자선 콘서트 '사랑 · 평화 · 희망 콘서트' 가 8월29일(토) 오후 7시,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있다. 혜은이, 김범룡 등 7080 가수와 나몰라패밀리, 가수 최은진, 탤런트 이윤지가 특별 출연한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후원회원들이 주관하는 바자회도 펼쳐진다.

사랑 · 평화 · 희망 콘서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국내·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 문화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 브라스 뮤지컬 '바람을 불어라'

· 입장권: 전석 3만 원 | 예매 및 문의: 743-6487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8시 / 일 15시

브라스 뮤지컬 '바람을 불어라' 가 9월27일(일)까지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에서 공연한다. 군악대 출신 작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군악대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12명의 재기 발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금관악기 연주가 공연의 재미를 더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 연극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 입장권: 일반 2만5천 원, 대학생 2만 원, 중고생 1만5천 원
· 공연시간: 화~금 20시, 토~일 16시 | 예매 및 문의: 762-0010

'페드로 칼데론 데 라 바르카' 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연극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 이 9월4일(금)~20일(일), 원더스페이스 동그라미 극장에서 공연한다. 세상은 하나의 연극무대이며 인간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다가 죽음과 함께 그 역을 마치고 천상으로 돌아가 자신이 맡은 역을 평가 받는다는 내용이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함(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 10인 이상 단체는 40% 할인함

### 연극 '울다가 웃으면'

· 입장권: 일반 3만 원, 학생 2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766-6007(교204)
· 공연시간: 화·목·금 20시 / 수 15시,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5시

30대 후반 여자들의 결혼, 죽음, 진실에 대한 단상을 옴니버스로 그려낸 연극 '울다가 웃으면' 이 8월30일(일)까지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두 편의 단막극과 한 편의 이미지극, 총 3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여성의 삶이 독특한 시선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5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